

선진국으로 가는 길*

金鎮炫**

우리나라가 거친 후진국 성장 과정을 주로 압축 성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내 압축 성장을 통해 중진국에 이른 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에 이르렀던 과정과 비교해서 한두가지 눈에 띄는 특수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현상 중의 하나가 한국의 해외 건설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유럽, 일본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해외 건설업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나 기술 축적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해외 건설업이 자본 축적과 기술 축적 그리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건설이라는 회사는 한국이 중진국에 이르는 경제 발전 내지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특수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나라의 TDX 교환기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쳐 TDX 교환기의 국내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신의 후진국에서 일거에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획기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해외 건설업, TDX 교환기의 발전과 같은 아주 획기적인 현상들이 한국의 압축 경제 성장을 성공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가 한국의 경제 조건, 안보 조건, 정치 조건, 외교 조건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간의 4각 관계를 살펴 보면 냉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20 세기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

* 본 稿의 내용은 9월 월례 동향 강의를 녹취한 것임.

** 한국경제신문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고문, 정

보문화협의회 의장, 前 과학기술처 장관,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 졸업.

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한가지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 학자인 존 루카스의 '20 세기의 종언과 현대의 종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20 세기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냉전이 끝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1914년 제 1차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20 세기가 끝난 것이요, 150년 동안 우리 인류사를 배회하던 공산주의가 끝난 시대요, 또 2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산업화의 시대가 끝난 것이요, 300년 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름잡던 민족 국가·시민 국가·국민 국가의 시대가 끝난 것이요, 1500년 르네상스 이후 시작된 근대 역사가 끝난 것이다. 여기서 근대라 함은 우리 역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고대·중세·근대의 세토막으로 나누듯이 그 세번째인 근대 시대가 끝난 것이다. 요컨대 20 세기의 끝은 단순히 20 세기의 종언이 아니라 냉전의 끝이요, 20 세기의 끝이요, 공산주의의 종언이요, 산업 시대의 종언이요, 민족 국가 시대의 종언이요, 그리고 더 크게는 근대라고 하는 한 역사가 끝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찰츠버그 세미나라고 하는 지식인 집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올림 로빈스씨는 최근 자기 글에서 우리가 지금 20 세기라고 하는 1994년을 지나고 있지만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20 세기는 1989년에 끝이 났고 우리가 걸고 있는 오

늘의 시간은 이미 21 세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한 정치 시대의 끝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분으로서 근대가 끝이 났는데 그 이후는 아직 규정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던, 脫근대, 超근대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란 말도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칼 막스에 의해 비로서 사용되었듯이 포스트 모던, 즉 근대 이후를 장래에 언제, 누가, 어떻게 명명할 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는 근대 시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존 루카스 교수도 그의 저서에서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 아직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근대의 끝과 더불어 유럽 확장의 시대, 백인 정복의 시대, 식민 제국의 시대,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대서양의 시대, 해양 세력의 지배 시대, 리버탈리즘·휴머니즘·브르조아 문화, 도시 문명의 지배 시대, 주거의 영구성, 프라이버시 존중의 시대, 우주와 물리 해석에 대한 뉴턴적 개념의 시대, 과학적 객관성의 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시대가 끝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책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책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곧 컴퓨터와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터 드릭커의 포스트 캐피탈리스트적 소사

이러티라는 책을 보면 탈근대 시대의 정의를 대단히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가 부정되지는 않으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근대 이후 탈근대 시대의 핵심은 종래와 같이 자본·노동·토지같은 요소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단일 요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포스트 캐피탈리스트틱 소사이어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문명사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 과제는 선진화입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했다는 경제 성장 혹은 경제 발전은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고 GNP(국민총생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우리나라는 겨우 중진국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국부 또는 축적이라는 좀 더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욱 중진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는지 모르나 GNP 대비 NNP(국민순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GNP에서 환경 코스트를 뺀 환경 중심의 새로운 생산 개념이나 근로 시간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놓고 비교해 보는 근로 시간 중심의 GNP 개념을 사용하는 등 어떤 기준에 의하든 중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 조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은 태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이 아닌 바로 미국, 일본, 러시아 및 중국입니다. 자원, 인구, 문화, 기술, 산업, 군사 등을 감안한 국력면에서 1~4위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지정학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면 더욱 좋고 안되도 그만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공존하고, 대화하며,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나라들이 모두 세계의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나라들이 태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제화라는 이름하에 적어도 외국어 한두어 개 짚은 꼭 해야 하고, 아침 6~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나라들은 중진국 수준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개념 즉 향락주의적이거나 소비주의적인 개념의 선진국이 아니라 강한 국력을 가진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오늘날의 선진국과 같은, 다시 말해서 제 2의 미국, 제 2의 일본 등을 지향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할 바는 양과 규모의 선진화가 아니라 質과 格의 선진화입니다. 격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한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고, 한 물건에도 품격이 있듯이 한 사회 공동체인 국가나 민족에게도 국격 내지는 민족의 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과 격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스웨덴과 스위스같은 선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직업 정치인이 없고, 국회 의원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자기의 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 운영 기간 동안 또는 선거 기간 동안만 부업으로 서비스하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직업 군인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방위 체제나, 예비군같은 체제로 그 나라를 유지합니다. 셋째는 두 나라 모두 원리에 충실합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영국에서 허물어진 시장 경제 체제를 가장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유일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또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사회 개량주의, 즉 복지주의 원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기들이 결정한 원리를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나라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나라 모두 전략적 집중을 할 줄 아는 나라라

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산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기술과 산업은 반드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맙니다. 스웨덴의 경우 기계 공업 가운데 증기 기계 부문, 엔진, 볼 베어링, 광산 기계 등에서, 스위스는 정밀 기계, 정밀 화학, 의약 제품(특수 제약), 음료품(네스카페, 네슬레) 등에서 세계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월드뱅크나 IMF 통계에서 항상 세계 1, 2위 또는 2,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과 규모로 한 때의 선진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과 격으로서 선진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높은 품격입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600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큼니다. 이 나라는 적십자라고 하는 평화의 이미지를 통해 적십자 운동의 숭고한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가치와 심볼을 창조했기 때문에 국격이 대단히 높은 사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스웨덴도 노벨상이라는 심벌을 통해서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두 나라는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위원회나 평화감시단 등의 활동을 통해서 격높은 외교를 함으로써 어떤 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영

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기술·산업·경제 부문에서 규모나 양으로 선진국과 겨루는 것보다는 몇가지의 특화된 기술, 산업, 문화, 정보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척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미국이나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특화(집중)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몇가지 기본적으로 뛰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 확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 간접 자본의 미래 투자 삭감을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복지주의라는 것이 휴머니즘 원형에 매우 가깝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요 체제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복지증진은 공공 부문의 확대를 유발하여 재정 적자를 누증시켜 결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켜 버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없는 기관(기업은 주인 있다고 봄)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입니다. 즉 국영 기업체, 국책 연구 기관, 국영 단체, 관공서와 그 휘하에 있는 협회, 연합회같은 기관들이 경쟁 국가의 주인 없는 기관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출 것이냐에서 결정이 난다고 봄

니다. 우리나라의 주인 없는 기관들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한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백배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셋째는 산업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의 산업 구조 변화 추세를 보면, 초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50~60%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후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재 구미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약 17~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20~30년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벌써 제조업의 비중 저하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을 살펴 보면, 1988년에 33%였는데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 27%까지 낮아졌습니다. 산업 구조상에서 제조업 비중이 33%에서 27%로 낮아지는데 만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재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건전하다고 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의식, 중간 관리자의 의식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으로 본다면 이 비중은 오히려 더 저하되면 되

있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금년에는 더 저하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비중이 증가하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조업처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지금까지 보면 핵심 산업으로서의 서비스 산업도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노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복지는 충실히 하되 과중한 조세와 재정 적자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하면 주인 없는 기관들이 주인 있는 기관처럼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 급속히 비중이 증가되는 서비스 산업의 확대라는 산업 구조상의 노쇠화 현상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가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들 과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도 드러커가 예견한 정보화·지식화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와 정보화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정부 기구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구청이 있고 동회가 있습니다만 동이나 구청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의 보스톤시처럼 서울시를 두서너 개로 분할해서 시본부에서 모두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기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화를 통해서 횡단적이든 종단적이든 그러한 조직

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확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도 정보화를 통해서 특히 소프트웨어나 지식 산업의 확대를 통해서 오히려 제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했던 1950~60년대에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교육 망국론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1960, 70, 80년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공급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중진국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지금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소프트웨어·지식 산업 분야의 교육 기관 설립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민간 이든 국가이든 소프트웨어와 지식 산업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가 넘쳐나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같이 질과 격이 있는 선진국화의 길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